

# “장수비결요? 청취자와 소통이죠”

### 박소현, SBS파워FM ‘러브게임’ 19년차 진행

장수하는 프로그램에는 뭔가 있다. 1999년부터 2007년, 2008년부터 현재까지 19년째 SBS파워FM(107.7MHz) ‘박소현의 러브게임’ 역시 그렇다.

“최화정의 파워타임”,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에 이어 SBS파워FM에서 가장 오래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박소현(사진)은 채널이 3년째 청취율 1위(한국리서치)를 기록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최근 서울 목동 SBS에서 만난 박소현(47)은 ‘러브게임’이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 “라디오는 생방송이니 TV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며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가 주청취층인데, 특히 솔로인 분들 호응이 좋다. 저 역시 남자친구도 없이 오래 일만 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은근히 곳곳에 숨어 있는 모양”이라고 웃었다.

“다른 사람들은 미친 듯이 연애도 해보면서 울고 웃고 에너지를 쏟아냈지만 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열정을 쏟을 곳이 방송 뿐이었죠. (웃음) 물론 19년간 뭔가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육체적 체력과 정신적 체력을 요해요.”

그는 그러면서 “김창완, 최화정 DJ도 그렇지만 장수 DJ는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특별한 목소리, 그리고 인생 풍부한 경험이 녹아든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발레를 전공했으나 부상으로 진로를 틀고, 배우를 거쳐 MC 겸 DJ로 거듭난 박소현은 젊은 시절부터 혼자 부딪고 깨지기를 반복했다고 했다.

“라디오 역시 처음부터 쉽지않은 분야였어요. 지금이야 제 낮고 나른한듯한 목소리를 좋게 봐주시지만 과거엔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성 의하냐’는 얘기도 들었죠. 시대가 바뀌면서 퇴근길에는 ‘짹’한 목소리보다 편안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분이 늘었고, 제게는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모두 함께 본 애청자들과는 끈끈한 ‘동지애’가 있다”며 “애인과 헤어지고 울고불고 사연 보낸 친구들이 결혼해 애까지 낳았고 연락 올 때는 참 기적 같기도 하다”고 웃었다.

19년간 한결같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박소현은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학구파’다.

“라디오는 본령이라 하면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호응해주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사랑 사연에 관해서는 적절한 조언을 못 해주겠다고요. 제가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 건 다른 DJ들이 할 수 있으니, 저는 다른 걸 해보자 생각했죠. 허영지 씨와 함께하는 ‘러브에피소드’는 실제 사랑 사연을 각색해서 드라마화하는 포맷인데, 제 아이디어예요. 대리만족이라도 하자는 생각이었죠. (웃음)”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해도 아이돌 정보는 빠삭해 ‘아이돌 알파고’로 불리는 그이기도 한데, 그것 역시 끊임없는 학습 결과라고 했다.

“팀명이 뭔지, 멤버가 누군지, 포지션이 뭔지 모른 채 ‘헛질문’을 하기 싫었어요. 래퍼한테 노래 해보라고 하면 실례잖아요. 그래서 듣고 짜죠. 마침 또 그게 재밌더라고요. 최근 관심 깊게 지켜보는 아이돌요? ‘(여자)아이들’요.” 그는 그러면서 멤버들 이름과 포지션을 줄줄이 나열했다.

박소현은 또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청취환경이 변하는 것도 실감한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는 라디오가 주로 국내 팬을 타겟으로 했는데, ‘고릴라’ (SBS 라디오 듣는 프로그램)가 생기면서 한 3-4년 전부터는 세계 각지에서 시차와 상관없이 듣더라.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놀라워했다.

이런 그도 한 차례 위기가 있었으니, 지난해 갈비뼈를 다쳐 3주간 라디오를 쉴 때다. 하지만 워낙 탄탄한 인맥 덕에 무려 22명의 스타가 십시일반으로 그의 빈자리를 채워줬다. 박소현은 “19년 방송하며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22명 명단을 적어두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현은 라디오 외에도 SBS TV ‘세상에 이런 일이’,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등도 꾸준히 진행한다.

그는 “라디오는 저 혼자 즐기는 웹툰 푸드라면, ‘비디오스타’는 MSG 있는 패스트푸드 같다”며 “사는 데는 둘 다 필요하다. 그래서 둘 다 하는 게 참 재밌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종노와르 M’을 마지막으로 연기는 좀 쉬었지만, 비중과 관계없이 좋은 역할이라면 배우 활동도 하고 싶다”고 왕성한 에너지를 자랑했다.

박소현은 이제는 정말 좋은 ‘짝’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도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라디오 청취자들 사연을 듣고 있으면 취업 못한 친구가 벌써 대리급이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저 혼자 옛날 그대로인, 마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도민준 같은 생각을 해요. 저도 전승을 만나고 싶어요. 조건요? 그런 거 보다, 인성과 센스를 갖춘 분이요. 그게 제일 어려울까요? (웃음) 그런데 정말 이렇게 변화 없이 살다가 끝날까 봐 걱정돼요.”

# “보컬리스트 꿈꾸던 시절 마음으로 불렀죠”

### 이선희, 4년만에 새 앨범 김범수 등 명곡 리메이크



가수 이선희(54·사진)가 4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왔다.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선희가 30일 리메이크 앨범 ‘르 데르니에 아무르’ (Le dernier amour)를 냈다고 밝혔다.

프랑스어로 ‘마지막 사랑’이라는 뜻의 제목을 표방한 이번 앨범에는 김범수 ‘끝사랑’, 나일 ‘바람기억’, 휘성 ‘제발’ 임창정 ‘소주한잔’, 버즈 ‘갑쟁이’,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등 6곡을 편곡해 담았다.

이선희는 “여섯 곡 모두 좋은 노래이고, 이미 원곡 가수가 충분히 그 가치를 빛낸 노래다. 그래서 이번 앨범을 작업하는 내내 ‘그냥 내 마음을 담자’는 생각으로 임했다”며 “어릴 적 보컬리스트를 꿈꾸며 그 많은 노래와 가수에 설레고 취해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꼭 그때처럼 취해 불러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선희가 2014년 정규 1집 ‘세렌디피티’를 낸 뒤 베스트 앨범이나 음원 단위로 목소리를 들려줬다. 지난 4월에는 북한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 봄이 온

다’ 무대에 서기도 했다.

실물 음반은 다음달 7일 판매를 시작한다.

이선희는 다음달 29~30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전국 투어를 이어간다.

깨끗한 음색과 시원한 고음이 매력인 이선희는 1984년 제5회 강변가요제에서 ‘J에게’로 대상을 차지하며 데뷔했다.

1985년 1집 타이틀곡 ‘야! 옛날이야’를 시작으로 ‘나 항상 그대를’ (1988),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1990), ‘조각배’ (1992), ‘너에게 가면’ (1998), ‘그중에 그대를 만나’ (2014) 등으로 사랑받으며 대한민국 대표 디바로 자리잡았다.

# 라미란, 장애인 여행 지원 캠페인 참여

배우 라미란(사진)이 장애인 여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록여행 셀럽 릴레이 여행지원’ 캠페인에 참여했다.

라미란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옥에서 열린 ‘초록여행 셀럽 릴레이 여행지원 2호’ 행사에 라미란이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라미란은 평소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에 관심이 많아 2014년 제15회 장애인영화제 홍보대사로도 활동했다.

그는 행사에서 “이동 불편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선택 여행길에 오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가족도 제약 없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미란은 캠페인에 참여한 다음 주자로 전날 중영한 KBS 2TV 월화극 ‘우리가 만난 기적’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췄던 배우 고창석을 지목했다.

## TV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5 KBS 뉴스광장(광주)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전생애 웬수들(재)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백미인생	25 닥터 365 3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45 KBS 뉴스(광주)	00 TV소셜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지방선거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40 지구촌 뉴스	50 이리와 안아줘(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특선 영상앨범 산 30 특집 8부작 로드 투 러시아	00 슈츠(재)		00 애니갤러리 30 고양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5 인형의 집(재)	00 12 MBC 뉴스 20 이별이 떠났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특조팀 55 특목 보험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5 노래가 좋아(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10 판다랑 40 꾸러기 식사교실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10 문화사색(재)	00 미디어세상 시청자와 통하는 TV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링 2 15 토이캡 2 30 주간연예수첩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속보이뉴스TV 인사이드	55 할매니네 동강아지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50 리틀빅월드
[9]	00 KBS 뉴스9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연설 10 KBS 스페셜	00 슈츠	00 이리와 안아줘	00 훈남정음
[11]	05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연설 15 KBS 뉴스라인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0 전남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10 김여준의 블랙하우스 1~2부
[12]	30 전라도 정명 천년 특집다큐 전라도 먼(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MBC 다큐프리임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5 뽀롱뽀롱 뽀로로
05:30 통일의 길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퓌! 퓌! 보니하니1~4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9:00 사이언스타 Q
06:20 세계테마기행 <우리가 몰랐던 베트남 4부>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9:30 EBS 뉴스
07:0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	13:00 지식채널e	19:50 배워서 남줄림 <2018 미투에 응답하라>
07:30 띠띠뽀 띠띠뽀(재)	13:10 장수의 비밀	20:40 세계테마기행 <지치고 힘들 때 로워웨이 4부>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3:40 다크 시선	21:30 한국기행 <여수, 맛보다 4부 - 하나보다 둘, 둘 보다 셋>
08:00 덩동덩 유치원 1~2	14:30 레인보우 루비	21:50 다크 시선 <도시의 성, 임대아파트>
08:30 미니특급대 X	15:00 후기심 소녀 도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8:45 알라라 뿌우	15:15 파프리카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09:00 똑딱맨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5:05 지식채널e
09:15 두다다쿵(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9:30 몰랑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30 알라라 뿌우(재)	
10:30 한국기행(재)	16:45 덩동덩 유치원1~2(재)	
	17:15 미니특급대 X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31일(음 4월 17일 癸亥)

<p><b>子</b> 36년생 적절하게 처리해야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8년생 소중한 사람이나 정보를 접하게 될 수 있다. 60년생 굳이 남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 72년생 전진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라. 84년생 안정된 마당이 되어야 집중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26, 87</p>	<p><b>午</b> 42년생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54년생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혜롭다. 66년생 우연한 기회가 행운으로 연결되리라. 78년생 바람의 흔들림으로 알고 가깝게 남겨도 된다. 90년생 미리 선수를 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7, 06</p>
<p><b>丑</b> 37년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다. 49년생 인재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느니라. 61년생 현명한 취사선택이 절실한 때이다. 73년생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 백 번 낫다. 85년생 빈곳을 매우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빠질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60, 98</p>	<p><b>未</b> 43년생 갈망이 생긴다. 55년생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로 향하고 있다. 67년생 절실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으리라. 79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정치하게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91년생 향후의 달성보다 현재의 유지에 신경 쓸 때다. 행운의 숫자 : 62, 40</p>
<p><b>寅</b> 38년생 휘둘 수 없다면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50년생 한꺼번에 처리 하자. 62년생 보완만 한다면 달성하리라. 74년생 걸가지는 차치하고 핵심 위주로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 86년생 억지로 는 되지 않는 것이니 무리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73, 12</p>	<p><b>申</b> 44년생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56년생 제대로 활용하자. 68년생 특별한 일을 당하거나 목도하여서 말하고 싶겠지만 절대로 발설하지 마라. 80년생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은 다르다. 92년생 예견 가능한 위험 인자는 미리 차단하라. 행운의 숫자 : 33, 61</p>
<p><b>卯</b> 39년생 조짐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면역할 수 있을 것이다. 51년생 예상이 빚나갈 수도 있다. 63년생 체계적인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법이니라. 75년생 구우일도의 기회라 할 만하니 확실하게 붙잡아라. 87년생 외출을 삼간다면 면역 하겠다. 행운의 숫자 : 03, 41</p>	<p><b>酉</b> 45년생 귀척하는 바는 대동소이 할 것이다. 57년생 목표에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69년생 행하지 않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81년생 선악과 정사를 가지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93년생 내면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0, 94</p>
<p><b>辰</b> 40년생 가까스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52년생 작은 국면을 넘어 간 인목으로 임하자. 64년생 서로 맞지 않다면 철저히 피하라. 76년생 난해했던 부분이 시원스럽게 풀리는 열쇠를 갖게 된다. 88년생 갈등에 사로잡히는 고뇌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7, 74</p>	<p><b>戌</b> 34년생 의외로 더디게 진행되는 형상이 비친다. 46년생 종일 내리는 소나기는 없는 법이다. 58년생 행운의 빛이 비춰지고 있느니라. 70년생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82년생 생산성이 없다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94, 33</p>
<p><b>巳</b> 41년생 천양지자가 되리라. 53년생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시끄러워진다. 65년생 종합적으로 실행해야만 순조로운 양상으로 이끈다. 77년생 하나의 기쁨과 함께 또 다른 부담감도 생긴다. 89년생 구연으로 인한 업보가 깊으리라. 행운의 숫자 : 64, 36</p>	<p><b>亥</b> 35년생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딛어야겠다. 47년생 연쇄적인 효과를 보게 되리라. 59년생 낮추면 높아질 것이요, 비우면 반드시 채워지리라. 71년생 종일 동분서주할 뿐 실익이 약하다. 83년생 문제를 제기할만한 시발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3, 50</p>